

이달의 여론조사

학생회 선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실성 있는 공약 마련이 중요하다”

후보자·선거자, 올바른 선거의식으로 임해야

지난 25일 공과대 정·부학생 회장 선거직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선거철이 돌아왔다. 이에 본사 여론매체부에서는 학생회 선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서울·경주 3백3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분석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학생회 선거에는 대다수(3백12명) 학생이 참여하겠다고 밝혀 높은 관심을 나타냈으나 모든 동아인들이 선거에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많은 학생(2백23명)이 후보선택 기준에 있어 공약사항을 가장 중시하고 있고, 결론에서 예로 든 세가지 사항 모두 고려한다는 후보의 인품이 두 능력을 중시한다는 것이 기타의견으로 나와 후보선택에 있어 객관적인 판단을 중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공약사항중 가장 중점을 두는 것으로는 학업연진 조성 정

책(1백17명)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학원 자주와 투쟁 정책이나 학내 복지 정책 등에 골고루 비중을 둔다는 것과 공약의 실현여부에 먼저 관심을 가진다는 대답이 기타의견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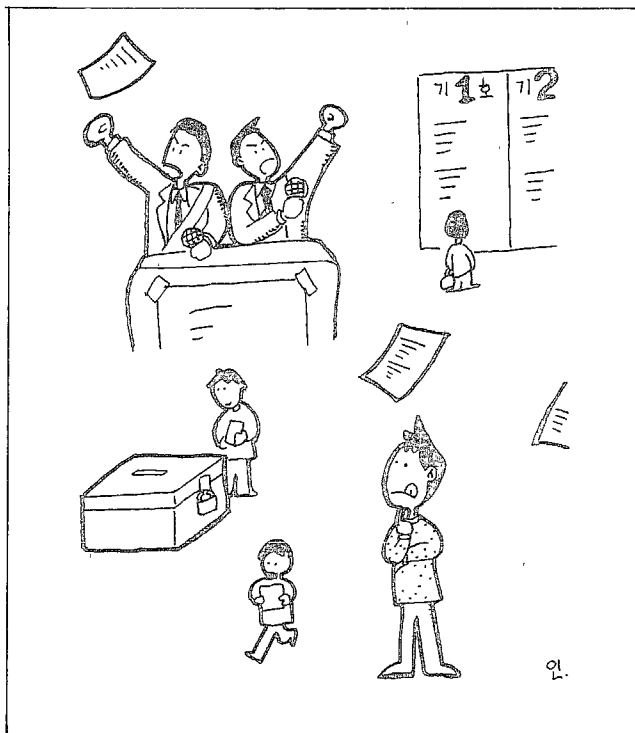
또한 무리한 공약이 학생선거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대부분의 학생(1백58명)들이 여기고 있어 후보자들의 현실성 있는 공약이 요구되어진다.

그밖에 문제점이라고 답한 것을 보면 학생들의 선거에 대한 의식부족과 학생운동경과간의 갈등심화 등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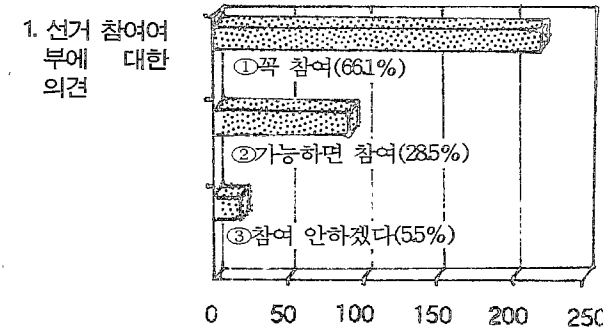
앞으로 남은 학생회 선거에 있어 후보자나 선거자나 모두 선거에 관한 올바른 의식을 가지고 선거에 임해야 하겠다.

실론에 응해준 모든 학생들과 자료분석을 담당해준 통계조사연구회에 고마움을 전한다.

〈여론매체부〉



1. 이번 선거에 참여할것입니까?
- ①꼭 참여하겠다. 218명(66.1%)
②가능하면 참여하겠다. 94명(28.5%)
③참여하지 않겠다(1-1로) 18명(5.5%)
- 1-1)참여하지 않겠다면 그 이유는?
- ①적당한 후보가 없다. 3명(15.8%)
②선거에 전혀 관심이 없다. 8명(42.1%)
③시간이 없다. 4명(21.1%)
④기타 3명(21.1%)
2. 후보 선택에 있어 그 기준은?
- ①후보의 경력. 37명(11.5%)
②공약사항 223명(69.3%)
3. 공약사항중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 ①학원 자주와 투쟁 정책 75명(22.7%)
②정치 투쟁 정책 30명(9.1%)
③학업연진 조성정책 117명(35.5%)
④학내 복지 정책 88명(26.7%)
⑤기타 20명(6.1%)
4. 학생선거에 있어 문제점은?
- ①지나친 상호 비방 61명(18.9%)
②파다한 선거운동(선전) 78명(24.1%)
③무리한 공약 158명(48.9%)
④기타 26명(8.0%)



‘오늘을 사는 동국인’ 인물 선정,

객관적 견해와 인품 필요

한 기사도 선거관련기사 못지 않게 시기상 아주 적절하게 잘 지적하였다.

한가지, 2면에 실린 ‘오늘을 사는 동국인-미당 서정주에 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관련 필자는 미당을 어떠한 관점에서 다루었는지 의문이다. 동국인으로서의 미당인지, 시인으로서인지. 내용의 일관성이 결여되었다.

또한, 미당 서정주 시인을 ‘소나무의 지조로 표현하기엔 부적합하다.’

한때 친일한 시인으로 비난을 받아왔던 미당에게 ‘지조’란

말은.....

시인에게 있어서 시란 생명과도 같다. 그 당시 시인들에게 있어서 일제에 대항하는 총칼은 다름아닌 시였을 것이다. 반하여, 미당은 일본을 찬양하는 글을 썼다.

일제 시대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열수 없었던 문학도의 방편이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 당시의 저항시인들의 저항의식은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미당 서정주 시인을 비난하고자 하는 건지의 끝은 아니다. 하지만 역사 위의 미당을 평하는 것이라면 읽는 이로 하여 객관적 견해를 갖게하고 공감할 수 있는 안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확연히 드러내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김정현
(인문대 불교학과-본사 모니터)

동문/칼럼



권 일 영
(중앙일보 기자-경제학과 83졸)

제작된 연발이든가, 우리 회사에 근무하는 기자직 동문들만 모처럼 술자리를 마련한 적이 있다. 중앙일보 편집국에 있는 나중성 선배의 제안으로 모였는데, 열명 남짓한 기자들이 모였다. 회사에 입사하고 처음 갖는 동문들의 모임이었다. 무슨 뚜렷한 목적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얼굴이나 확인하고 싶다는 뜻이었다. 정운경 화백께서 아무래도 과장이 되어서 했지만, 마침 급한 일이 있으셔서 양주 한병을 보내는 것으로

실과는 겨우 2층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러나 이 친구 얼굴을 본 지도 어떤 두 달이 넘어서는 것 같다. 이따금 낯설로 불쾌해진 얼굴을 쑥 디

생활에서 찾는 학창시절

참석을 대신했다. 여러 선배들과 함께 한 그 자리는 민중의 상태에 이를 정도로 진 술 자리였다. 모두들 즐겁게 옛날 이야기를 하고, 학창시절의 기억들을 되살렸다.

사실 말이 동문이지, 서로 바쁘게 살아가는 처지에 점심 한끼 함께 하기가 쉬운 노릇은 아니다. 자자 마자 시간이 다르고 업무의 사이클이 제각각이어서 심할 경우에는 한층을 사이에 두고도 두세 달씩 얼굴 구경하기가 힘이 든다. 그러나 기적 일리메이터 안에서 만나, 약속나 하며 ‘언제 점심이라도 같이 하자’는 기억 없는 약속으로 섭섭함을 달랠 뿐이다.

우리 회사의 최충홍 기자는 학창시절에 내 술을 꽤 얻어먹은 후배다. 내가 있는 사무

실에서 내 자리를 찾곤 하지만 내가 바쁠 때는 자동판매기의 커피와 한 잔 뿜아 줄 수도 없을 정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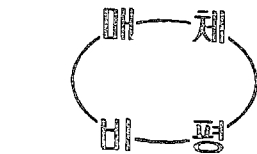
심지어는 같은 층에 근무하는 사진부의 임익순 기자는 비록 회사에서 대학 후배임을 알게 되었지만, 점심 식사를 할 때 해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다. 며칠 전 경북 안동에 취재를 가게 되었는데, 마침 임익순 기자가 사진을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정이 빠듯했다. 결국 단들이 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서울에 도착해서였다.

우리 회사에서 멀지 않은 곳에 경향신문사가 있다. 이곳에는 나와 같은 시절에 학교를 다닌 선배와 친구, 후배가 근무하고 있다. 내가 알기

로는 기자직으로 여섯째 가장의 동문이 있다. 걸어서 10분이면 갈 수 있는 그곳을 나는 1년에 세 번 이상 찾아가지 못한다. 그저 부락이 있을 때나 점원적인 표정을 하던 편집국 문을 들어가 선배의 얼굴을 찾는 정도다.

내가 특히 게으르기도 하겠지만, 다른 선배나 친구들도 마찬가지다. 경향신문에 근무하는 한만수 기사는 학번도 나와 같고, 학교 신문사에도 같이 입사했다. 한만수 기자도 우리 회사에 찾아오는 일이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시간대가 어긋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회사일 말고도 바쁘게 살기 때문이다.

오랜간만에 자리를 함께 하



서해페리호 사건

“특종은 언론의 질을 가늠하는 잣대인가? 기자는 ‘특종’을 위하여 존재하는가? 다소 생동한 질문을 던지는

과열·추측보도로 오점 남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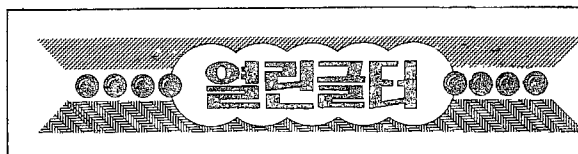
언론, 정확·공정으로 사명 다해야

것은 서해페리호사건에서 나타난 언론의 과열경쟁의 폐해를 너무나 크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한국언론 역사에서 갖을 수 없는 오명과 오점을 남긴 이번 사건보도는 우리 언론의 총체적인 문제점을 아울러 보여 주었다. 몇사람의 증언을 마치 사실인양 단정된 추측보도 특종을 뽐낸 다른 언론사의 과속보도는 백선장과 공무원들의 제3국 망명을 기정사실로 만들었고 경찰의 수배를 촉구한 모양이 되었다. 그후 특종장의 시체가 발견되자 오보의 책임을 짐할로 떠넘기는 구태도 여전했다. 다만 결과적 오보임을 솔직히 반성한 몇몇 신문은 빼고는 이 사건에 대해 반성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다시 이와 같은 상황이 등장하지 말라는 보장은 누구도

할 수가 없는 것이 우리의 언론현실인 것이다.

이와는 다르지만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과 관련해 고 김기철씨의 애인이었던 홍정은 씨의 진술문본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태도를 보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김기철씨 유서대필이 일어났을 적에 언론들은 일제히 죽음을 부추기는 검은 세력이 있다고 대서특필했다. 시종일관 재야세력을 부도덕하고 파렴치한 집단으로 몰아부쳤다. 그러나 검찰조사에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다고 폭로한 홍



지금 쓰레기는?

언제부터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었던 쓰레기 분리수거. 국토는 좁고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자원을 재활용하는 의도는 매우 큰 것이었다. 인구가 늘어나면서 쓰레기는 점점 많아지고, 집단 이기주의가 팽배해져 있는 지금.

이를 해결할 방법을 강구할 수 밖에 없고 이런면에서 볼때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은 여러 면에서 매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같은 사회 운동에 영향을 받아 은방골에도 곳곳에 쓰레기 분리수거통이 설치되면서 쓰레기 분리수거는 시작되었다. 그리고 더 활발한 운동을 위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위한 아르바이트생 모집광고 자보도 꽤 많이 붙었다.

나도 동대인으로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는 선거를 할수 있다는 것을 실천하려 했고 모두들 앞장서서 참여하는 모습을 보았다. 하지만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은 시작인지 6개월 가량이 지난 지금 우리학교의 모습은 어떤가?

아니 학교의 모습을 말할 것이 아니라 그 일원으로 생활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쓰레기 분리수거하는 학생이 하나 둘 줄어드는 것에 경정이 라도 하는 듯 쓰레기 분리수거

통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그냥 방치된 분리수거통 수는 더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처음의 그 좋았던 의미는 희석되어 가고 있다.

학우들의 참여도는 이제 무관심으로 바뀌고 이러한 현실에 누구하나 의문을 품거나 문제점도 제시하지 않은 채 당연하다는 듯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제껏 그랬듯 이, 그리고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는, 시작은 거창하고 끝은 흐릿지는 ‘용두사미’가 된 것 이다.

시작보다는 마무리가 깨끗해야 하지 않는가. 끝까지 마무리를 잘해 나가는 동국인이 되었을 하는 바람이다.

권 경 애
(지연대 가정교육과)

선관위의 역할

10월의 마지막을 뜨겁게 달구는 선거가 한창이다. 27, 28일 이번 단과대 선거가 모두 끝나고, 동원선거와 총학생선거만 남게 된다.

늦은감이 있으나, 내분과 그 다음 선거를 바라보면서 이과대 선관위 활동을 하면서 느꼈던 선관위의 역할-활동방향에 대해 몇자 적는다.

대학대 선거는 제도권의 선거거부와 분명 다르고 또한 달라야 한다. 진보적 지성을 향한 대학인에 대한 믿음-공정선거 실현에 대한 믿음으로부터 선

관위의 활동방향을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다.

만약 대학대 선거가 기존의 기성 정치인들의 선거와 똑같다면 선관위는 강제와 제재의 역할을 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진보를 향한 대학인으로, 공명 선거 실현에 대한 믿음으로써 선관위는 후보들의 타협과 조정의 매개자로서 위치 지워져야 한다. 그렇지 않게 된다면 선관위는 한쪽의 지원부대로 전락하게 된다-이과대 선관위의 초기 모습이 이것을 여실히 증명한다. 후반에 올바른 의사결정을 해준 선관위에 격려를 보낸다.

이러한 타협과 조정의 매개자로서 선관위는 선거의 원활한 운영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시행 세칙에 없기 때문에 정계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세칙에 없다면 서로간의 합의를 도출시키는데 선관위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다. 즉, 선관위는 후보들의 합의에 근거해서 모든 활동을 할수 있을 뿐이다.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합의를 이끌어내는 상대방의 역할을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정치관에서 선관위의 활동과 다른 점이다.

앞으로 남은 선거 일정속에서 선관위들은 다시 한번 대학대 선거에 대해 고민해 주기 바란다.

김 미 미
(이과대 물리학과)

목 먹 골

축하합니다

- 우리의 귀여운 동기 혜원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혜원이의 예쁜 미소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신 혜원이 어머니 감사합니다. -혜원이를 사랑하는 국교93동기
- 그리고... 그림의 최초의 CC인 종석이형과 은주선배의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27기 어떤 후배가
- 화공과 카니발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전파협(전국 파트너 없는 사람 협회)
- 1028 vox동기들의 발표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백상 167기 일동
- 10월29일은 김도부 이쁜이 사회의 생일이예요. 모두 축하해요. -93김도부가
- 10월27일 2시 동탈 제16회 정기공연을 축하합니다. 특히 93를 고생합니다. -선배
- 87(?)학번 통계학과 고현배선배님께서 1031(日) 결혼하십니다. 축하드립니다. -후배 위:성

■경상도 문디 기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기건아! 열심히 살아라. -東佛93동기

■ 10월21일은 경찰행정30기 이상민의 생일! 진심으로 생일을 축하한다. -30기 일동

■ 10월25일 익환이의 생일을 축하합니다. 익환아 고맙다. -RHIE. S. W

■도목공과4년 강진영형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과원일동

■국교과의 영원한 노망 성수를 아비의 생일(10월27일)을 축하드리요. -나(종연·진·형화·선숙)

■지리교육과 93수회의 생일(29일)을 많이 축하합니다. -93동기들

수고하셨습니다

- 영문과 Macbeth공연 축하드립니다. 정말정말 수고했어요!! -영문과 165년 후배
- 스타당국 '강철군화'팀 한시간 공연을 위해 4달동안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2우상

알립니다

- 10월28일·29일 경영 통합(주간+야간)축제인 한마당이 개최됩니다. 경영인 모두 모여서 멋있는 축제 만듭시다. -93대대인
- 10월27일은 불상 앞에서 민속극 연구회 탈이 경기공연을 한대요(2시). 마을이 아픈이만 오세요. -탈패의 수호신
- 동대기숙사 Open house가 30일(土)날 열리게 됩니다. 많은 성원 바랍니다. -재기원학사 933학우가
- 11월3-4-5-6일은 경상대 무역학과 누리제입니다. 무역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요... -ZTL

열심히 합니다

- 인쇄노조 풍물매 합치락 덕분에 공연 잘 마치고 땀땀고 갑니다. 고생 하십니다. -원지박
- 일어일문과 학생회장 권한대행 92학번 김태형학우의 건투를 빌며 금년을 단결일문의 기치하에 잘 마무리합니다. -93년 학생회장 곽
- 정치외교 모의국회가 11월8일 중강당에서 열립니다. 준비하는 후

배 여러분 힘내십시오.

그리고...

- 수진이의 군대 합격을 축하하며, 잘 갔다오기를... -167기
- 은순이와 명조의 everlasting love를 위하여 -재호·남진이가
- 정희아! 좋은 친구들이기 때문에 널 힘있게 하는걸까야. 우정으로 가분하게 뛰어넘기를... -친구 영화
- To속, 영진. 건강하게 열심히 살아. 항상 밝게 웃는 모습이 아름답다.(?) -은영

온 방 골

축하합니다

- 불교문화대학의 인가를 축하합니다. -폰네프 회장
- 인숙아! 축하. Himen도 축하. 빛나는 너의 날을! -은정아, 은경이
- 여운아! 승환아! 잘 태어났어. -국문과의 꽃들

-수고&광패(3)

■11월1일 '하나'들이 제5회 정기공연을 합니다. 남은 기간도 열심히.

-인

열심히 할시다

■관·경 93학번 화이팅! 시험준비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요. -92 대모

■큰 행사가 다가오고 있어요. 항상 열심히 노력합니다. -조경인

■로타랙트의 무궁한 발전과 14기의 단합을 빌며. -147기

■열심히 일어서는 우리의 아마추어 무신국(HAM). 더욱 열심히. -대운이랑 여비

그리고...

■군에 간 친구 진훈이의 건강한 재대를 기원하며... -경제과 Se

■이번에 졸업하시는 고미사의 선배님을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바래요. 그리고 후배들을 잊지마세요. -93 후배

■D·K·B·S 캠퍼스들이여! 캠퍼스 1기는 이제 물러갑니다. 그러나 11월 단합대회를 기대하시라. -킬카 171

60년대 이래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국민의 이동성 증가는 막대한 교통수요의 증가를 유발하였고 이 교통수요 유발에 대한 현재까지 교통부본 시설투자는 미약했으며 또한 주로 도로부분 위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80년대 이래 전국 자동차 보유대수 증가와 동기간의 도로연장 증가율을 고려하면 도로망의 확충도 자동차 증가율에는 못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철도시설은 인구규모로 보아 일본의 1/3 수준, 프랑스 1/8수준 밖에 되지 않으며 철도의 경쟁력과 역량의 약화는 1961년 13%에 달했던 철도의 여객수송 분담률이 1986년 43%로 감소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따라서 철도망은 가까운 장래에 그 용량 한계에 도달하게 될 것이며 철도부문의 투자증대는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는 교통수요 증가에 부응하고 국민소득 향상에 따라 고급교통수단 즉 고속도로보다 빠른 교통수단을 선호하는 국민 의식구조 변화에 따라 적절한 교통서비스 수준을 제공하고 국토의 반일생 화권이 형성되어 국토의 균형발전을 촉진시킨다. 하여 경부고속철도 건설계획을 발표 지난해 6월30일에는 시험구간에 공사착공에 들어갔으며 지난 8월에는 차량선장을 마쳐 불탄서 TGV가 우선 협상대상으로 선정되었다. 그러나 경부고속철도 건설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더우기 차량방식(바퀴식, 자기부상식)에 있어서는 현재까지도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고속철도의 타당성에 대하여 논의하

투자효율성 측면
현 경부고속도로 교통량이 60%가 화물차이므로 여객수송보다는 화물수송에 대한 투자와 개선이 시급하다. 그러나 경부고속도로는 여객수송 전용이므로 화물수송에 직접 기여하지 못한다.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여객들이 고속철도를 이용하여 도로는 화물수송 도로가 될 것이라는 기대는 예측에 불과하며 서울에서 부산까지 2시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승하차 역에서 승객의 집까지 1~2시간 소요된다고 하면 고속철도의 의미가 없다. 즉 교통시설 확충이 시급하다. 기존 철도가 극심한 제동을 받고 있는데 서울(-)대전간의 복복선화가 시급히 실현되고 현 경부고속도로 나머지 구간의 확충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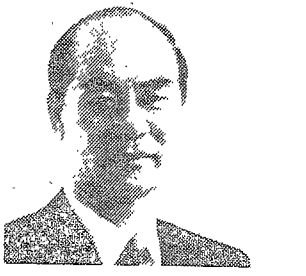
더 시급한 실정이다.
△경부선 철도의 경우-서울-수원 복복선은 이미 완료했으며, 수원-대전간은 약 7천8백억원이며 복복선화 가능.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대전간은 이미 확장 개통했으며 수원-화성 구간은 1천억원이 소요.
즉 고속철도 예산의 20조의(예산비용) 1만 투자한다면 현 교통체증은 고속철도 운행과 맞먹는 교통체증 해소가 될 것이다.

기술적 측면
기술적 측면에서 고속철도 문제점을

시시·민민

김 영 배

(민주당 국회의원·교체위)



낮은 기술 이전해 무엇하나

고속전철사업 재검토 돼야한다

살펴보면 현 정부가 선택한 차량 방식인 차륜식(바퀴식)은 20년전에 개발된 것으로서 자기부상열차가 실용화 단계에 들어선 오늘날에는 이미 기술수준이 다한 낮은 방식이며 우선 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불탄서의 T G V제작사인 알스톰사 스스로도 제2세대 고속철도(시속 3백km) 인을 인정하여 제3세대 고속전철(시속 5백km)개발을 추진하는바 지금 차륜식 고속철도를 도입한다면 완공시점인 10년 후에는 제3세대 고속철도에 밀려 구식 철도로 전락하게 되는 것이다.
선진국의 자기부상열차 개발현황을 보면 독일은 2002년까지 상용화선이 완공예정인 현재는 지난 84년 부터 운전시작 각각 2차량 편성되어 2백명이 탑승 최고속도 4백35km/h달성 5백km/h까지 가능하다. 스웨덴은 1997년 상용화선 착공예정 스미국-1992년부터 실용화 10개년 제

획 (국가예산 4천8백억을 개발비로 투입) 하는등 제3세대 고속철도를 위해 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이미 실용화 단계에 이르는 나라도 있다.
국내기업들도 자기부상식 열차연구에 주력 1989년 부터 1993년까지 4년간 기계연구원내에 자기부상 열차 사업단을 구성 1백m의 시험트랙, 5백60m의 EXPO 전시시스템등이 개발되는등 상당한 기술 축적이 이루어져 현대, 대우가 시속 1백50km자기 부상 열차를 개발했고 5년후인 98년에는 시속 3백km이상 실용화 가능 더구나 TGV경우 도입되면 기술이전도

감안 해보면 최소한 공사비가 20조를 훨씬 웃돌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의 국력과 경제적 상황을 고려할때 이천문학적 금부의 재원확보에 의구심을 가질수 밖에 없는 것이다.

고속철도에 따른 피해 예상

이러한 커다란 3가지 측면에 설득력이 없는것 이외에 현재 시험선구간(천안-대전)의 공사에 따른 주민의 피해 발생을 살펴볼때 정부의 피해대책이나 피해보상이 미약하여 공사가 전노선에 확대 될때 피해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피해사태-발화에 따른 가옥붕괴, 붕괴위험과 사육동물의 유산 및 수목이 끊겨 지하수·농업용수의 고갈등

또한 고속철도가 운행시 문제점을 살펴보면 소음진동에 따른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데 고속철도의 소음은 항공기 소음에 버금간다.

불탄서 T G V의 제의서에 표시한 소음도는 88dB이라한다. 이는 김포공항 소음피해지역이 심한 (1등급지역 90dB-이주대상)곳에 해당되며 이 소음치는 환경과 지형이 다른 불탄서에서 운행시 발생되는 소음치이므로 산과 개천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한 소음이 유발될지 모른다. 게다가 공사비 절감에 따른 서울, 천안, 대전, 대구, 경주, 부산

6개전역의 노선이 지상과 하기로 결정 도시의 양분화는 물론 소음과 진동이 피해가 더욱 심화될로 예측된다.

고속철도 차량선정의 의혹

불탄서 T G V를 경부고속철도의 차량으로 선정된 과정에서 한철의 의혹도 없었던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6차에 걸친 불탄서, 독일의 제의서 내역과 평가 기준 및 점수를 평가결과와 세부사항이 공개되지 않고 있으며 경쟁상대였던 독일의 지멘스사는 선정과정에서 입찰가격, 계약조건등 5개항목에 문제가 있었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차량형식 세부선정 과정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으며 게다가 독일의 지멘스 그룹회장 W.O. Martensen씨가 대통령에게 보낸공신 항의서한에는 대통령에게 "부당하고 공명正大하게 협상 하라는 각하의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다" "프랑스가 한국정부의 특정세력의 지원을 받음으로써 확실한 이익을 취했다"등과같은 내용과 표현들로 항의서한을 공식전달 하였다는 데서 선정과정에서 불공정이 있었다는 지멘스사의 입장에 의미를 부여할수 밖에 없다.

경주김 인접 통과 가능성

경부고속전철의 경주캠퍼스 인접 통과안을 주장자로 하는 고속철도철관리공단의 입장이 전달된 이후 학교측은 이번 국정감사의 교통·건설관련 위원회소속 국회의원들에게 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노선변경 제의를 요청한 바 있다.

이후 진행된 경부고속전철 및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국정감사에서 본교에서 요청한 경주 캠퍼스인접 통과와 저지등의 경주권 노선 문제거론 이전에 부정의혹이 제기 되면서 경부고속전철인 폐지론이 대두되었다.

교체위 소속 민주당 정상용의원

은 경부고속전철은 수년만 늦춰도 가능한 21세기 첨단기술인 자기부상식 고속전철 기술·시설이전이 가능함에도 서울로 프랑스 TGV와 기술이전 계약한 데에 따른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정의원과 마찬가지로 현재 야당 의원들은 원천적인 경부고속전철의 재검토를 이번 국정감사중에 정

부담국에 촉구했다.

이밖에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경부고속전철에 대한 문제는 영남지역의 편중개발과 진행중에 있는 천안, 대전 구간의 시험공사 기간에 발생한 소음·발진등에 따

정부측 수정안에 경주노선변경 언급 없어

폐지 여론 확대로 악조건 타개해야

은 5백56건의 민원해소도 제반 피해 및 km당 50억에서 1백억으로 2배 증가된 공사비확정등의 의혹등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정책국의 한 관계자는 "경부고속전철이 완공되면 영남지역에 전국 물동량의 74%가 편입되고 교통량이 집중되어 지

역감정 초래가 우려되며 시험구간에서 조차 나타난 공사의 문제점과 지역주민의 수많은 민원을 고려할 때 앞으로 공사는 문제 투성"이라며 자세한 검토없이 진행된 사업에 대해 비판했다.

특히 이번 국정감사중에는 기술이전절차 선정 과정에서 나타난 프랑스 TGV에 대한 의혹들이 하나씩 제기되고 있다.

이 문제와 관련 국정감사자리에서는 독일 지멘스사의 항의서한이 공개돼 경부고속전철 사업자체 반대여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한편 정부측은 이러한 반대여론을 의식 경부고속철도 건설 계획 일부를 수정·발표한 바 있다.

이 수정 내용은 경부고속철도건

설사업의 준공년도를 당초 98년에서 2001년으로 3년 연기하고, 투자비 절감을 위하여 서울-대전-대구 역의 지하역 신설계획을 수정, 기존의 지상역을 개량·활용토록 하며

인양-서울역간, 서울역-수원역간 기간의 지하선로 신설계획을 변경하여 기존 철로와 역사를 개량·활용토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경주캠퍼스와 관련된 경부고속전철 도심구간 노선계획은 가급적 지하에 건설하겠다고 당초 계획한 수정, 지하선로나 지하역 건설이 지상건설에 비하여 투자비가 많이 소요되어 투자비 절감 차원에서 이를지상으로 수정하였다.

그러나 본교 인접노선 35km지하

화 노선안은 경주 울동(북남)역 신설을 비롯해 추진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의문을 요구한 한 국회의원은 "타 지역노선이 기존역사를 사용하고 노선또한 기존 경의선, 경부선을 이용하는 데도 불구하고 경주권역노선 신설과 역사설치 및 경주캠퍼스 인접 지하노선을 정부가 고집하는 데는 지역 유지들의 유치전략이 작용했을 소지가 많다"고 지적

했다.

한편 감사원은 공사비가 당초 5조여원에서 10조여원으로 두배가

방 늘어난 것과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의혹들에 대한 감사를 27일부터 진행했다.

이같이 국정감사가 끝난 지금까지 경주노선의 경주캠퍼스 인접 통과안은 철회되지 않고 있어 앞으로 지속적인 저지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경주 시장당국과 지역주민들과도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노선안 철회투쟁의 정당성을 알려 지역 여론을 유도하는 것도 바람직하리

라고 본다.

(사회부)

사설

학내 정화책 마련 시급

얼마전 언론은 대학의 비리를 폭로하는데 열중했다.

모 대학 부지에 학교측과 기업이 합작하여 산업폐기물을 버리고 있다라는 보도를 내보냈다. 대학만은 깨끗해야한다는 사회적 통념을 겨냥한 대학 폭집내는 일에 언론은 흥미를 느꼈던 모양이다. 사건발고는 학교측의 입장은 고려대상도 되지 못했던 보도였다.

관계인론의 사건확대였던 대학의 잘못이든 사실이든 곧 밝혀지겠지만 이 보도를 접하는 대학인들은 다시한번 자신의 교정을 둘러보게 만든다.

'우리학교의 환경은 이상무인가'하고, 사실 최근 모든 대학들이 몸살을 앓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가 캠퍼스 환경정화다.

수없이 난무하는 선전물, 대자보등과 이·공대의 실험 폐기물, 한정된 캠퍼스에 1만여의 사람이 쏟아내는 생활쓰레기들.

이 문제는 이제 모든 대학의 골치거리가 되고 있으며 언론의 대학폭집 내기보도의 좋은 소재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위협의 대상에 본교도 예외는 아니다.

한달 평균 70t이라는 쓰레기 처리문제는 관계자들의 골치거리다. 언론이 무시위서가 아니라 학교 모양새가 호트러질 상태까지 와있다.

한정된 예산, 한정된 인력으로 학내 쓰레기를 말끔히 처리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청소차 2대가 학내를 돌며 이들에 한번쯤은 김포 김단 수도권 매립지로 운반하지만 재활용폐지, 철재류, 목재류를 비롯해 미술학과 실습이나 이·공대 실험후 생기는 폐기물은 처리가 곤란한 실정이다. 어디도 이러한 쓰레기를 매립토록 허락하는 곳은 없다. 이·공대 실험폐기물 처리는 지난 여름 인근 주민들의 악취·소음등의 민원이 잇따라 여타 방지시설을 위한 정화조의 가동으로 그나마 문제소지는 없으나 폐기되어야 할 질기나 목재, 철재, 콘크리트 덩어리등은 주무부서인 관리처 나름대로 그때 그때 폐기처분하고는 있어 궁극적인 대안마련이 시급하다.

분리수거나 학교자체 소각로 설치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나서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니다.

일단 분리수거할 마면이나 2천만원이 상회하는 소각로 도입에 대한 예산이 만만치 않다.

물론 학내환경정화가 중대한 문제임을 학교측이 감안한다면 예산지출을 해야 하겠지만 분리수거함이 쓰레기통으로 변하고는 의식수준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실부름 시도로 끝날 것이 뻔하다.

또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진다면하더라도 자원재생공사측에서 운반해갈 때까지 보관할 장소도 마땅치 않다.

근본적인 의식개혁과 장기적 계획을 가진 예산투자가 실상 멀게만 느껴지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꾸민만 할 일이 아니다. 구성원들 나름대로 자그마한 실천을 시작해야 할 때다.

학생들은 공공계시판을 이용하고 대자보에 기한을 명시, 시한이 되며 자체수거하는 일부터 습관화하고 학생회에도 환경부형태의 부서를 편성해볼지도 한다.

또한 강의실에 커피, 음료수를 반입하지 말고 휴지를 주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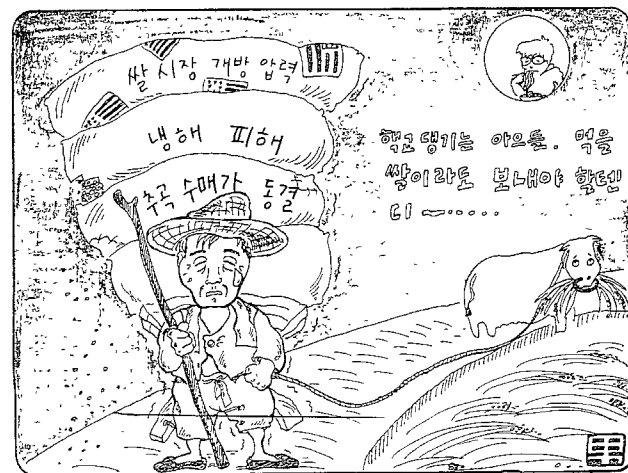
한편 학교측은 지속적인 홍보와 장기적 안목으로 계획과 예산을 편성하고 단계적으로 분리수거와 제반문제를 담당할 요원배치등의 일을 현실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한다.

'어렵다, 동국의 의식수준으로는...'하여 비판하기는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하는 일일뿐이다.

학교, 학생회모두 하나되어 작은 일부터 실천해야 할 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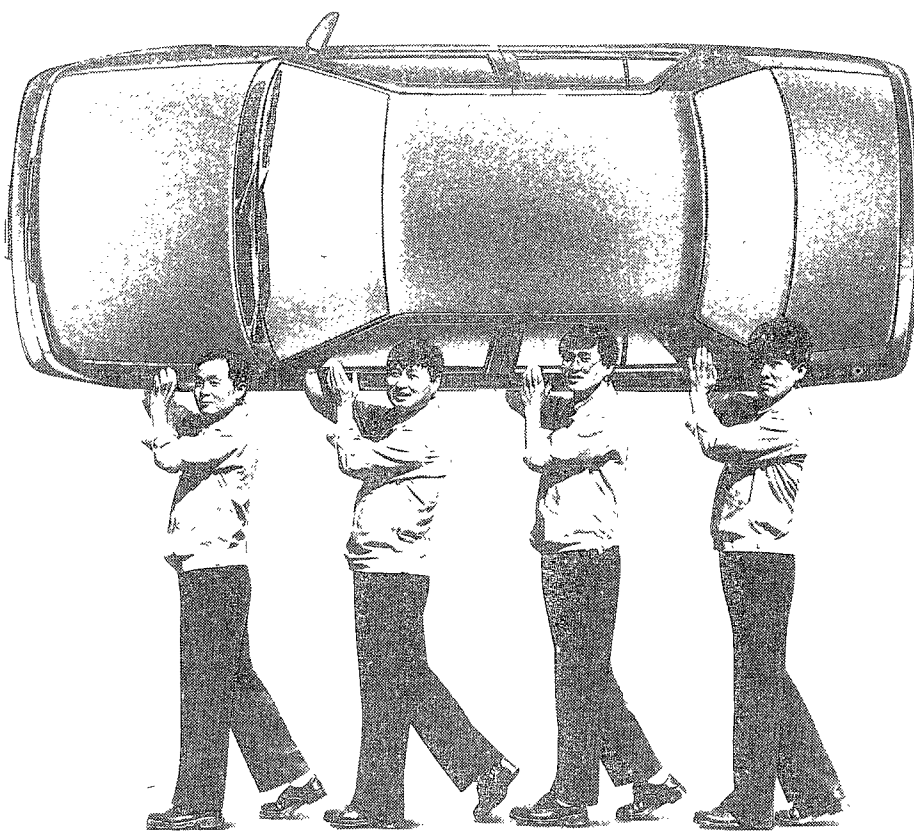
東國漫評

김상남



(사회부)

“자동차의 몸무게를 줄이는 사람들”



승용제품개발연구소
자동차 경량재료 연구팀

“우리 자동차도 이제 군살 좀 빼야죠. 비만한 사람이 병에 잘 걸리듯 몸무게 무거운 자동차가 연료도 많이 들거니와 환경오염의 주범이거든요”

승용제품개발 연구소 자동차 경량재료 연구팀 박봉현 연구원

이처럼 자동차 몸무게를 줄일 수 있는 신소재 개발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과제이자 더 나아가 수출전선에서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그는 말한다. 요즘은 수출시장에서조차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선진국 수준에 맞는 새로운 자동차를 만들지 못할 경우, 수출 판로가 막혀버린다는데...

최보다 훨씬 가볍지만 그보다 충격에 강한 신소재는 없을까? 고민하는 동안 자신의 몸무게마저 줄었다는 자동차 경량화팀 사람들

무한대의 잠재력과 비전을 지닌 오늘의 현대맨들이다.

좋은 환경, 좋은 차
현대자동차

◁ 하반기 기업채용 전망과 취업준비

채용방법 천차만별...정보활용 중요

다들부터 각 기업체들의 신입사원용시험이 실시됨에 따라 본격적 취업시즌을 맞게 되었다. 특히 올해는 여러가지 이유에서 취업이 가장되고 있어 취업준비생이 취업부서까지 다달게 지혜를 짜야만 입장이자.

하반기 취업전망을 살펴보면 502를 채용규모는 1만5천여명으로 1년전보다 20%정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인문·사계 학생들이 선호해왔던 국영기체나 금융기관들은 올해 이래 채용을 하지 않거나, 채용규모를 크게 줄이고 있다. 또 꾸준히 신장세: 보이던 중소기업들이 예년에 못되는 신규인력을 요구하고 있는 것도 특징이 되고 있다.

변에 경제적 여건이 불리해드루고 고급인력을 요구하는 업종이 있고, 내년 5월부터 시작되는 CIV 분야는 1천여명에 가까운 인력의 대이동과 신규사원을 기다린다.

정보통신, 전자, 전기, 컴퓨터분야는 수출과 내수면에서 성장세를 지속 채용 전망을 밝게 주도하는 업종이라고 하겠다. 또 예년과 마찬가지로 보험업이 연사원 증식으로 채용이 크게 늘어 전망이며, 자동차의 내수경쟁으로 역시 영업직의 수요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다행으로 여겨진다.

건설이나 유휴(油), 섬유 등은 7월경부터 다소 여유가 있으나, 서점의 최소인원만 보충하는 곳이었을 유물한 업종으로 분류되고 있다.

는 조사에 따르면 우리 대학생들이 취업조건으로 보수보다는 지명도의 성장, 발전성을 더욱 중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입입사 후 1년미만 전직자수

가 적지 않으며, 기존 직장인 절반 이상이 전공 및 성격이 맞지않아 가능하면 전직고 고려해보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그만큼 직장선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일깨워주고 있다.

취업이 어렵다고해서 아무직장이나 들어가고 보자는 학생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평생을 몸담으면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할 직장을 선택하는데 소홀한다면 그 피해자는 곧 자기 자신임을 유념하지 않으면 안된다. 일반적으로 좋은 직장이라함은 업무가 자기적성과 맞아야 하고 장래성, 안정성과 함께 급여, 후생복지, 승진기회등의 근무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이제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며 직장을 선택해야 할 문턱에 있는 사람에게 '첫단추'는 이래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자신이 원하는 취업문을 무난히 통과할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여기에서 고려된 사항이 취업정보의 최대한 활용이라 하겠다. 나

름대로 열심히 준비를 해놓고서도 정보를 제대로 입수하지 못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자기가 희망하는 회사가 결정되었으면 다음으로는 채용방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요즘은 채용방법에 있어서도 회사별로 천차만별이다.

7회사는 서류전형 및 필기시험과 면접을, 1회사는 서류전형과 면접을, 1회사는 필기시험과 면접을, 또 필기와 면접이외에 적성검사, 인성검사를 요구하는 회사도 있고, 토론회와 토의검사를 반영하는

회사도 있다. 이처럼 채용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부담을 안게되는 쪽은 수험생이다.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는 문제가 아닌가.

입사시험에 있어 가장 중요시하는 것으로는 면접을 들 수 있다. 면접은 필기시험이나 서류전형만으로 평가할 수 없는 인물의 됨됨이, 즉 성격이나 직업관·인생관·잠재적 능력을 총체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요소이다.

최근 각 기업들이 면접에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은 회사운영의 실체는 영업이기 때문에 기획·관리 부서의 명칭을 빼고도 활동성, 적극성이 뛰어난 인재가 회사를 살릴 수 있다는 시각에서이다.

이에따라 면접방식도 개인면접, 집단면접, 집단토론식 면접, 영어인터뷰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대부분의 기업들이 인성·적성검사를 활용하고 있으며, 그 반영 비율도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도 유의해야 할 점이다. 이는 회사측에서 적성불만족에 따른 이직율을 줄이고 개인의 성격이나 능력을 변화시키는데 한계가 있다는에서 도입되고 있다.

이상에서 올해의 기업체 채용전망과 채용방법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봐왔지만 취업의 왕도는 주다면 필한 대응이 요구되어진다. 이러한 점에서 취업을 앞두고 있는, 앞으로 취업전선에 나서게 될 저학년에 위해 몇가지 당부하고자 한다.

그 첫째는 확실한 학점관리이다. 장소·시간등의 제약으로 많은 기업들이 서류전형을 채택하고 있는데 그 기준은 성적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때문에 최소한 B학점

이상은 유지해야 할 것이다. 둘째는 자기전공에 맞는 자격증을 따는 일이다. 이는 일정한 능력이 있다는 의미로서 취업준비시나, 취업이 결정되고 나서도 유리한 카드로 작용하게 된다.

셋째는 국제 경쟁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어능력의 향상이다. 특히 면접시 외국인과의 직접대화에 대비한 회화는 필수적인을 잊지말아야겠다. 덧붙여 토론회나 토의검사전으로 채용하는 기업들이 점차 늘고 있음을 간파하지 말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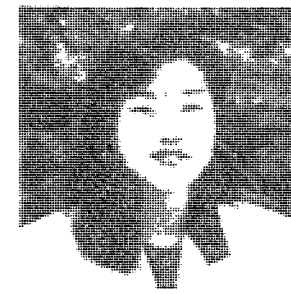
넷째는 취업정보의 적극 활용을 말하고 싶다.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싸워 백번 이긴다"고 했듯이 남보다 빠른 정보는 그만큼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어진다.

이와관련 학교당국에서는 이미 취업정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고, 특히 이번 2학기부터는 금융통신과 계약, 각 단과대학별로 컴퓨터 단말기를 이용해 취업정보를 신속히 얻을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뿐만아니라 각 기업체에서 의뢰해온 취업추천서를 그때그때마다 취업과 게시판에 공고하고 단과대 교과과목 보내 학생과 기업간의 연계확대를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회사설명회, 기업체 방문등을 통해서도 취업의 극대화를 도모하고 있는 만큼 이를 최대한 활용해 주길 바란다.

아무쪼록 어려운 취업난 속에서 여러분들의 성공적인 사회진출로 개인적인 보람, 국가사회에 이바지하는 보람을 함께 누리기를 기원하는 바이다.

문 기 곤

(학선저 취업파장)



조그만 실수 연연하지 말라 단정한 몸가짐은 '기본'

힘든 관문들을 통과해온 능력있는 여러분들이 모두 알고 있듯이 가장 분명한 것은 적당한 크기의 또렷한 말투로 소신을 밝히려는 것과 면접장 출입시에 위원들에게 예의를 갖추는 것이다. 그 외에도 질문은 끝까지 듣고 질문이 끝난 후에도 잠시 생각해본 후(23초 정도)에 답변하는 것들이다.

나의 경험을 비추어서 얘기하면 당일 우리회사는 모두 강당에 모인 후에 5명씩 대기실로 들어갔다. 모두 잘 알고 계시겠지만 회사에서 미주치는 -의식을 하든, 못하든- 직원을 중 면접장에서 면접위원으로 앉아있을 가능성은 다분하므로 항상 겸손하고 단정한 몸가짐을 갖추는 것은 기본이다.

대기실안에서는 인사부 직원을 로부터 지시사항을 일괄적으로 듣게 되었다.

내용인 즉는 면접실 안의 구조에 대한 설명과, 먼저 들어가서 성명과 수험번호를 밝힌 후에 의자에 앉아서 면접위원들로부터 질문을 받으라는 내용이었다.

너무 태연하게 보이는 것보다는 약간의 긴장을 갖고 외유를 보이는 것이 앞말이라 생각된다.

나의 경우는 무난한 편은 아니었다. 차례가 돌아와서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발걸음에 힘이없다고 따끔한 한마디의 말을 들은 것이다.

물론 그 말을 듣고 초반부터 당황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그 말은 어쩌면 나를 시험해보기 위한

것이라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매 순간 정성을 다하여 답변하려 애썼다.

질문의 내용은, 특이한 것은 없었으며, 지명도가 가족소재 등등 대체로 평이한 내용이었다.

지금도 생각해보면 당시 내내에 둘러싸여 있던 탁자의 면접위원들이 무슨 생각을 하였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미 여러분들은 그 전단계를 거친 분들이니 충분히 그 회사에 입사할 능력이 있는 분들이자. 제발 이 점을 명심하시길...

나중에 입사동기들의 후담을 들 어보면 여러가지 에피소드도 많았었다.

인사도 알고 의자에 앉았는데, 아니면 하물며 수험번호를 반복하였느냐 하는 것 등이다. 약간의 실수가 그 사람을 채용하느냐 안하느냐에 치명적인 점은 될 수 없다.

특히 우리 여학생 여러분! 사회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적극적인 태도가 면접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두서없이 얘기가 이어졌고 남보다 더 도움이 될만한 내용도 아니므로 마무리가 부끄럽기는 하지만 이로써 동안을 사랑하는 한 선배의 글을 마칩니다.

송 정 희
(동서증권 근무/가교 93졸)

면접시험 어떻게 대비해야 하나 선배의 경험담

'할 수 있다'는 자신감 보여야 단점도 솔직히 드러내는 용기필요



진학이나 취직이나의 갈림길은 캠퍼스 생활을 하는 학우들에게는 중요한 고관거리에 놓인다. 진학을 가속속에서 지우고 취직간선에 돌입할 때 나의 패배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사회진출에의 희망감도 못지 않게 컸던 것도 사실이었다. 그 선택이 결정된 것은 4학년 1학기 시작 근처였다.

진로 결정이 좀 늦은 편이었지만 머리 속에서 항상 성공하는 꿈만 꾸었다. 그대야만이 험난한 장벽속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만 같았다. 그게 적중했던 것 같다. 여러분의 실례후 내마음에 꼭 드는 직장을 잡았다. 그것도 졸업이전에.

사회는 젊은이들의 패기와 합성을 요구하는 것 같았다. 젊은 사람에게서 위험하기 짝이 없는 시대를 짐작하기 싫어하는 것 같았다. 건전한 사고방식, 도전적인 젊음, 활력, 성실감 이런 소재들은 그들이 사회적재생의 필수적인 재료가 되는 것 같았다.

우선 면접에 임함에 당당해야 할 것 같다. 복제된 지식을 수록한 기계적 두뇌보다는 원시적인 생동감을 발휘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만

이 지닐 수 있는 당당한 분위기를 기존 사회에서는 제일 민음직스런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 같다.

자신을 솔직하게 관찰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자신의 장점을 부각시켜서 특정집단에서 요구하는 상품적 가치를 보이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자신의 단점도 약간 드러낼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다. 평소에 거리던 단점도 들을시킴으로써 인간미를 지닌 사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다. 젊어서 완벽해 진다면, 그 집단에서는 그 사람이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이다. 사실 완벽한 인간이 있을 수 있을까?

'I can do everything'을 잊어서는 안되겠다. 겸손과 몰리심, 주저함과 깊은 판단력, 이들은 회사 종업원들의 차지이다.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신장들에게는 없애서 안될 무기인 것이다. 이러한 자신감을 강렬히 바치는 사람이 선택되는 것이다. 하루에도 열반씩 'I can do everything'을 외쳐볼 일이다.

11월 1차 공채이후의 취업정보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자신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곳이 여러번 들이닥

치는 취직의 물결선상에 놓일 경우가 있다.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공부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어쩌다 취직시험은 여러군데 떨어지고 여러군데 합격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순간 순간마다 최선의 마음을 다하는 것이다.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라도 줄기차게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 끝으로 나는 '면학과 (도서관 학파)'의 하나였다. 동료해서 아침을 먹고 밤 늦게까지 도서관에서 살았다. 부모형제의 얼굴도 잘 못보고 자발적으로 공부했던 것 같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도 없애서는 안될 것들이지만 힘들게 노력해서 얻는 '실력' 이것이야말로 취직의 지름길 아닌가 생각된다. 가끔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들의 모습에서 어떤 예술작품도 흉내낼 수 없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된다.

김 백 룡
(중소기업중앙회 근무·영문93졸)

단과대 학장에게 듣는다

⑭ 법정대 김영중 학장

"고시반 시설확충 -후원회 정착으로 학업분위기 조성할 터"



—경주캠 법정대의 장기적 발전 계획은—
=양보다는 질적발전을 추구해야 한다.

우수한 학생 확보와 자질이 뛰어난 교수를 유치해 2천년대에는 상위 학교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대학의 전통을 세울 계획이다.

—졸업후 학생들의 사회진출 및 취업대책은—
=법조계와 국영기업체에 많은 학생들이 취업하고 있으며 지역중소기업과의 많은 접촉을 통해 사회진출을 꾀하고 있다.

—고시합격자를 높이기 위한 학교의 노력은—
=고시반 합격자들에게는 수업

료를 감면해 주고 있으며 정기적으로 수험도서를 1년에 백여권 구입, 컴퓨터 정보관리체제를 통한 고시정보와 모의시험문제를 고시생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 여름·겨울방학 집단 학습을 통해 토론, 정보교환, 학습공부등의 자리를 마련해 주고 있다.

—일반학원으로서 평가되는 현 고시반에 대한 개선방안은—
=학업이론에 관한 불만이 없다고 보나 속사실미비등의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은 인정한다.

따라서 내년에는 침대설치등의 제반시설 확충과 냉·난방 시설을 교제 학업분위기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시합사 건립에 대한 구체적 인 계획은—
=아직은 구체적인 대안 제시를 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는 독지가의 후원과 학교지원을 통해 2천년대에는 설립할 계획이다.

—이건법학의 교양강좌부족에 대한 증설 방안은—
=내년 이부대학 설립을 추진중에 있으며 야간 신선헌학과 연계해 교양강좌를 증설할 예정이다.

—재임중 학정으로서 실천하고 싶은 사안은—
=고시반 육성차원에서 고시반 후원을 위한 장학금 지급을 하고 있으며 강의계획을 경주캠에 맞게 개정해 볼 계획이다.

그리고 학생들의 교육을 취업과 연계시켜 실용적인 교육으로 교육제도를 개선하려 한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에게 당부 하고 싶은 말은—
=복잡한 지식습득에 매진해 주었으면 한다. 그리고 목표에 맞는 공부를 설정해 끈기있게 추진하는 끈성있는 학생들이 되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이민영 기자)

안 내

명사초청강연회(청년만해강좌) 및 추계 명찰 순례를 다음과 같이 개최하기에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명사초청강연회

가. 정의의 실천과 인권의 회복

초 청 연 사:이문호(전 감사관, 전국불교공동연합 공동의장)

시간 및 장소:1027(수), 15:00, 중강당

나. 전환기를 맞이한 한국민주주의의 전망과 과제

초 청 연 사:김근태(국민회의 전 집행위원장)

시간 및 장소:1113(수), 15:00, 중강당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추계 명찰 순례

가 장 소:백양사, 내장사, 금산사

나 일 자:115(금), 15:00~116(토), 19:00

다. 참가대상 및 인원:학생, 교수, 직원(신청접수순으로 90명만을 모집 하되 교수 및 직원은 20명 이내)

라. 참가비:5만원.

학 생 처 장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접수

'93학년도 전기 졸업예정자 중 교원자격증 발급을 위한 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를 다음과 같이 접수함

다 음

1. 대상:'93학년도 전기졸업 예정자 중 사범대 학생 및 교직과정 이수자

2. 자격

가. 교직과정 이수자 명단이 교육부에 제출된 자

나. 교직 및 전공과목 성적이 각각 평균 80점 이상 가능한 자

3. 접수기간:'93.11.22(월)~11.24(수)

4. 제출서류: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1부 (소정양식)

5. 배부 및 접수처:사범대학 및 이부대학 교과과목 ※유의사항:교원자격 무시험 검정원서 미제출자는 교원자격증이 발급되지 않음

사 범 대 학 장

취업특강 안내

'94학년도 졸업예정자의 취업을 향상을 위하여 중소기업에 관한 취업설명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학생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아 래

1. 내용:중소기업 취업에 관한 설명회
2. 대상:졸업예정자 및 재학생
3. 일시:1993.11.10(수) 14:00~16:00
4. 장소:동국관 L301
5. 주최:학생처 취업과

※당일 자료집 배부함

학 생 처 장

전용회선사용방법 변경안내

10월25일부터 서울-경주간 전용회선 사용방법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 안내하오니 사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용개시일:10월25일
2. 변경내용:기존전용회선 1회선을 R/D(교원방식)-1회선, E/M(직접다이얼식)-3회선
3. 사용방법:경주전화번호(국번없이 구내번호)를 직접다이얼함. 예)경주관제과 시설계의 구내 전화번호가 2081인 이므로 직접 2-0-8-1을 다이얼하면 경주관제과 시설계가 호출됨.

관 리 처 장

여기 조용한 동국 사량의 실천이 있습니다!

학교채권발행안내

○발행목적:교육환경개선(도서관, 실험실, 습기자재구입, 교육시설확충)을 위한 재원 확보

○발행단위:5만원권, 10만원권, 50만원권, 100만원권

○금리:무이자

○매일처:조흥은행, 서울·경주캠퍼스 경리과

○구좌명:313-03-001769(조흥은행)

학교법인동국학원 이사장 오인갑

○상환시기:재학생은 졸업후, 동문·대학원생은 2년후

○안내처:기획조정실 기획과(02.260.3019), 기획홍보과(0561-770-2019)

기 획 조 정 실 장

동학가사...혁명의 사상적 발로

민중문화의 숨겨진 열쇠

포교방편으로 이용된 율문

인내천—평등사상 물어낸 서민가요

1 동학가사에 깃든 사상

우리민족의 많은 문화유산 가운데 서민적 문화는 그것이 유형이든 무형이든 전해 내려 오는 것이 거의 없다. 그것은 귀족문화와 달리 기록에 의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경주를 중심으로 우리 조상의 민중문화를 발굴해보고자 한다. <편집자>

동학의 사상적 발로이자 문학적 표현물이 동학가사임을 주지하는 바다.

본고는 동학가사에 담겨있는 동학사상을 인지하여 당시의 시대상을 알고 나아가 한국 근대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먼저 동학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9세기 중엽 동학이 썩을 수 있기까지의 역사적 사회적 배경이 설명되어야 하겠다.

19세기 초엽부터 시작된 외척·세도정치는 한 세기에 걸쳐 국내에 걸쳐 삼정의 문란을 초래해왔다. 이면에서 한말 여객이 속수무책이었다. 실상가상으로 흥사·괴사등 요인·잡언이 유행하고 절박(切迫)·화적(火賊)이 횡행하여 사회가 극도로 불안한 상황이었다. 급기야 철종조 말년에 이르러서는 삼남 일대에 민란이 일어났고야 한다.

국내외의 제반 위기상황에 걸친 것으로 19세기 이후 서서정치의 민족적 위함에서 국가보위의 의식이 팽배하고, 서학(西學)의 도전을 민족적 주체사상으로 응전하려는 의식의 외출에서 동학이 창도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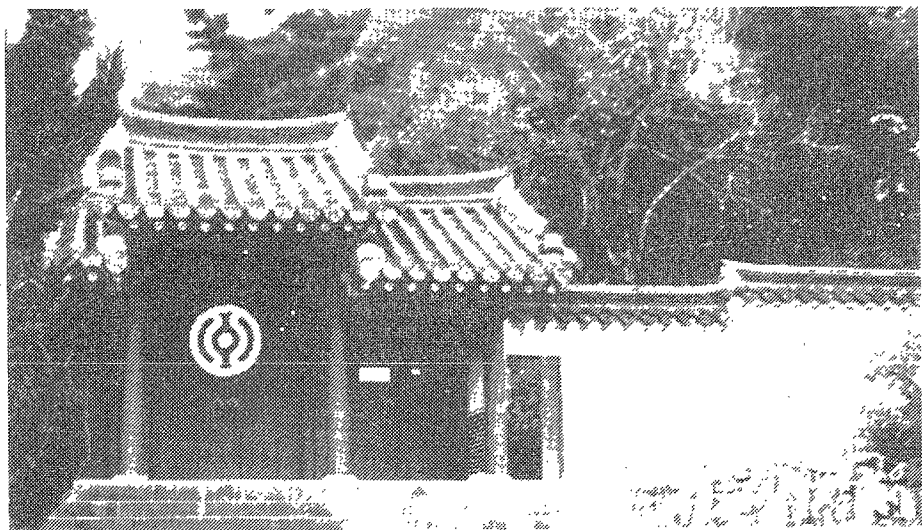
물론한 양반 후손인 경주 향반 출신 수운 최재우(1824~1864)에 의하여 1860년 4월5일 동학이 창도된 것이다.

꿈일런가 잡일런가 천지가 아득해서 정신수습 못할테라 공중에서 외는소리 천지가 진동할때 <안심가>

무속발도불 하날님으로부터 꿈속 밟으니 밟게 드러내신 천도(天路)이니 순수한 한국종교이며 우리 민족의 열과 슬기가 담겨져 있다.

용담유사(龍潭遺事)는 동학의 경서(經書)로서 일반대중이 알기 쉽도록 제세주께서 직접 저작하신 한글 가사이며, 한문으로 이루어진 '동경대전(東經大元)'과 더불어 동학의 기본 경전이다.

종지(宗旨)는 '사람이 곧 하늘이니 사람을 하날님과 같이 섬기라'하여 인간의 존엄



◇ 인간평등·민본 사상으로 민중에게 자리잡았던 동학은 자주근대화의 버팀목이었다. 사진은 동학의 산실인 경주 용담정.

성과 민권(民權)의 존귀함을 강조하였고, 또 나라를 돕고 국민을 다 잘살도록 함을 역설하여 그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니 동학은 애국 애족의 국민종교이다.

동학가사(용담유사)는 그 내용상으로 보아 수운 자신의 생애와 가문에 관련된 용담가·안심가·교훈가·몽중노소문답가와 제자들에게 대한 훈계, 설교를 위해 지은 도수사·권학가·도리가·흥비가 그리고 조금 특이한 절절, 아홉편이 실려있다.

그렇다면 왜 수운은 가사라는 장르를 택하여 종지를 썼을까?

그것은 첫째, 당시에 가사가 일반에게 널리 보급되었다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겠다. 초기 가사는 서정적 내용을 주로 노래했으나 후기가사에는 일상사 모든 것이 가사체로 표현되고 이 이른 시대적 영향 때문이었다. 둘째로 종교의 교훈(교교의 방편)을 가사로 활용한 점이다. 유교의 교훈을 권선지로서가, 불교의 교훈을 회심곡, 낙도가 등 그리고 천주교가사에서 종교의 포교를 위해 활용됨을 볼 수 있다. 셋째, 지역적으로 영남 지방에 가사가 널리 유포되어 있었다. 대방가사를 지금도 가정리 일대와 양동마을 등지에서 찾아볼 수 있을 정도이다.

네째, 어떤 내용을 일반에게 전파시키기에 가사와 같은 율문이 유리하다. 소설같은 산문 속에 삽입가요(민요)나 가사구절이 들어가는 예가 그런 이유에서이다. 다섯째, 우리 민족의 감흥을 역시 우리말로 표현하였으므로 '동경대전'은 한문을 이해하는 식자층(識者層)을 대상으로 하였던 가사는 한문만 이해하는 사람은 누구나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용담유사'는

부녀자나 서민을 상대로 지은 것이다.

동학사상의 근본이 무엇이나에 대한 연구는, 철학계에서는 인내천사상으로 보고, 국사학계에서는 민족운동사로서의 민권사상을, 정치학계에서는 민족주의라는 측면에서 행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동학사상의 기본을 평등주의·혁명주의·민중주의의 셋으로 보고 있다.

그 중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는 인내천사상은 동학사상은 학대받고 천대받아 온 농민층·천민층에게 깊은 공감으로써 받아들여졌다.

"사인여천(事人如天)이라는 주의하에서 상하·귀천·남녀·존비할 것 없이 똑똑 맞설을 하고 경어를 쓰며 서로 존경하는 데서 모두 실용설교되었고, 둘째 죽이도 밟고도 아깝고도 저녁이도 도인이며 서로 도와 서로 먹으라는 데서 모두 집안 식구 같이 일심단결이 되었습시다." 이는 동학란 당시 입도한 도인의 실화로서 평등사상의 좋은 사례라고 본다.

우리도만 빈천자로 초리에 자라나서 우리가 무슨팔자 고진감박 없을소냐 <안심가>

다같은 세상사람 같으니라 이러한가 <교훈가>

빈천자 곧 부귀와 거리가 먼 농민 천민들을 '우리'란 말로써 묶어 수운 자신도 그 속에 포함시켰으로써 비록 자신이 고도하여 한울님의 영(靈)이 내린 몸이면서도 다같은 위치에 선 만민평등을 말하고 있다. 둘째로 용담유사에는 인간지상주의 곧 여성해방을 실현한

근대지향성을 들 수 있다.

현숙한 내집부인 이글보고 안심하소 대저생령 초목군생 사생재전 아닐런가 하물며 만물지간 유인(唯人)이 최령(最靈)일세 <안심가>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이것은 동학의 가장 기본사상인 인(人)의 개념을 그의 부인에게 효유하는 형태로 표현한 것이다. '도수사'에서는 그의 여성관이 종교적인 사상으로서 성숙하여 가화론(家和論)으로 발전되어 나타나고 있다. 수운은 여성들을 교육을 통해 의식을 가져야 함을 강조했음뿐만 아니라 몸소 실천으로 보여주었다. 그가 데리고 있던 여자들 비를 해방시켜 한평생 수양관으로, 한평생 며느리로 삼았는데 이는 신분제도로 타파의 한 예로 인간평등사상의 구현이었다. 이러한 수운의 여성관인 가화지순(家和之順)의 사상을 해월은 더욱 발전시켜 부부부순(夫夫婦順)의 사상으로서 확립시켜 동학의 근대적 여성관을 형성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근대적 여성관은 갑오동학운동시에 구체적인 방안으로 나타난다. 즉 동학의 사상으로서 요약할 수 있겠다. 그중 5항의 노비문서는 소거할 사와 6항의 칠천천인의 내주는 개선하고 백경두상의 평양평은 탈거할 사는 계급의식의 타파를 주장한 것이며 7항의 정춘파부는 개가를 하라하는 여성들이 신분적인 굴레에서 벗어나는 것을 기반을 형성해 갔다.

틀려나 전장에



세백 5시쯤이면 율림공원을 우리 뒷동산처럼 찾은지도 벌써 몇년이 지났다. 버드나무가 푸르던 시간대인지라 귀찮게도 여겨지기도 했지만 이제는 제법 습관처럼 되어 버렸으니 시작을 참았다. 그 자위도 해본다. 옛

그제만해도 단풍이 곱게 물들어 수확의 계절임을 실감했는데 이제는 낙엽이 뒹굴고 있어 겨울의 문턱에 성큼 다가온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속에 세월의 무상함을 되짚는다. 그런데 이곳을 다닐 때마다 나를 슬프게 하는 것이 있다. 내가 통행하는 공원임구에 교통신호등이 있는데 이 신호등을 무시하는 차량이 눈에 띄기 때문이다.

인적이 뜸한 새벽거리에서 적신호앞에 차를 멈추고 서있는 광경을 외국여행에서는 누구나 볼 수 있는 모습이다. 더구나 국경이 나 운동경계장은 말할 것도 없고 상정에서도 앞줄을 서서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서 새치기 하나없는 참을성을 우리는 왜 배워주지 못하는 것일까? 이라고고도 선진국의 문턱에 와있으며 문화국민이 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안타까울 뿐이다.

지난 7월부터 우리 사회에서는 기초질서를 바로 잡기 위한 단속이 펼쳐지고 있다. 단속을 시작하자 3개월만에 위반사범이 3백만명을 넘었고 벌과금도 무려 3백40억원에 이르렀다 하니 이렇듯는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반을 했는지 궁금하다. 우리 국민들과 질서의식은 해이하다 못해 실종된 것이나 다름없다. 88년 서울올림픽때 보여줬던 절제된 질서와, 세계가 감탄했던 동방의 자국의 참모습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이나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가 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때가 아니다.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너무 늦었다. 우리의 의무는 하지 않고 권리만 주

오출세 <인문대 국문과 교수>

질서있는 사회

이항우

(사회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강하는 사람들의 뒷투리가 아닐 수 없다. 일반적으로 그 국가의 법질서문화는 그 나라의 국민성을 나타낸다. 어릴 때부터 질서지킴이교육이 행해지고 있는 까닭을 선진국에서나 본다면 수치스러운 민족임에 틀림없다. 세살 비뚤은 여든살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는데 지금부터라도 어린이에게 질서지킴이교육을 서둘러야 하겠다.

질서는 사물이 올바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하는 일정한 순서이다. 동물과 세계에서도 먹이를 쪼아 먹는 순서가 있듯이 인간사회에서도 서열이 있다. 조직사회에서 연공서열이 중시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비롯된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자기의 순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일이 그토록 억울한 일이라고 할 수는 없다. 꾸준히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순서가 오도록 되어 있는 것이 철칙이기 때문이다. 먼저 상대를 생각하고 자기 분수를 안다는 것은 질서와 질서의 기초가 된다.

사회의 혼란을 일으키는 것은 규칙을 위반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그러나 이를 보고서도 아무런 제재를 가하지 않는 사람에게는도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질서있는 사회에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감시와 위반자는 제재를 받게 된다. 결국 이 사회를 유지해 가는 것은 시민 전체의 공동노동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누구의 잘못을 따질 필요도 없이 모두의 책임이다. 급변에 일어난 대항사건들도 따지고 보면 우리들의 안일한 자세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당장 효과 있는 것에만 매달려 언제나 손쉽게 이익을 가져다 주는 실책에 매몰된 까닭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이 있더라도 이를 극복해야 한다. 이를 고치지 않고서는 우리 사회는 바로 일일할 수 없다. 공동체적의에 대한 인식이 그 어느 때보다 소중한 때이다. 맑고 시원한 새벽공기가 그리워지는 시점이

읽을 수 없는 한 권의 책 T.S 엘리엇 '성립'

젊은 시절의 독서는 대단히 소중하다. 그것은 한 인간의 운명을 결정 짓거나 바꿀 수도 있다.

TS 엘리엇과의 만남은 내게 있어서 그런 엄청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는 이런 뜻에서 푸른 눈을 지닌 이 서양 사람을 읽을 수가 없다. 어쩌다가 내가 그를 선택했고, 그와 함께 문학을, 아니 세상을 보고자 했을까. 세계 문학사의 큰 불우리를 차지하는 그 많은 문인들 가운데서 엘리엇은 영국인, 그것도 1920년대 모더니스트 시인, 비평가들....

엘리엇은 그 당시 한국에서도 대단한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의 유명한 시집 '한두 개는 고등학교 때 주워들은 실력'으로 외우고 있었던 것 같다. 이를테면, 'A 프루프의 연가' 첫머리와 같은 시행들은 얼마나 멋있게 생각했는지 모른다. "그러면 갑자기, 그대야 나, 수레대 위에 에케트로 마취된 환자처럼, 저녁 노을이 하늘에 퍼져가네..." 지금 뒤돌아

그때 내가 받았던 그 신선한 감동이 가슴 뒹뒹하게 느껴진다. 그러나 그의 문학론을 접하게 된 것은 대학에 입학한 뒤였다. 나는 이 부분에서 다소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그의 시와 비평 가운데서 내가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된 것은 비평 쪽이었다. 어쩌서 비평이 있었을까. 시집을 읽을 때 훨씬 더 생동감을 느낄 수도 있었을 텐데, 어쩌서 그렇게 딱딱한 비평 문장을 다듬는 데에 더 많은 힘을 기울이고 있었는지. 아마도 그것은 내 상상할 때였을 것이다. 즉, 산문으로 된 비평 문장이 그의 문체 취향이나 '안목을 보다 직접적으로 전달해 주리라', 어쩌면 그런 일찍이 계산이 앞뒤로 작용했던 것이나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지금 돌이켜 볼 때, 만일 그 시가 사실이라면 나는 매사에 허겁지겁 쫓기는 사람처럼 성급하게 살아 왔다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

엘리엇과의 만남은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해 줬다. 그의 전

모든것을 묻고싶은 작가, 엘리엇

흔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나는 어디까지나 동양인이요 한국인 일 뿐이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그러니까 내가 본 엘리엇, 즉 나의 엘리엇이야 할 것이다.

지금 내 내부에 살고 있는 엘리엇의 초상은 어떤 것일까. 그는 본래의 엘리엇과 많은 격차를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그를 사랑하며, 그에게 모든 것을 묻고 싶다. 그가 생각하는 영국문학은 유럽문학사의 일환에 속하겠지만, 나는 처음부터 아시아 문학관속에 태어났으며 그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나는 엘리엇에게 많은 것을 찾고, 또 그 때문에 참으로 많은 방향을 계속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주 그에게로 돌아와 있다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를 읽고 있을 때, 항상 어떤 문체에 부딪치고 보면 그의 안목에 기대고 있는 나 자신을 가끔씩 발견하게 된다.

김시태 <문화평론가·국문과22졸>

그 유명한 "광화문 영어학교"

이 나라에서 맨 처음으로 한학급에 열명 인원의 학생을 등록시키고 영어 공부를 제대로 시키는 학원이 나. 영어 회화 클럽을 하기로 작정하신 분이려면 외면 할 수 없는 곳

선생은 모두 자격있는 사람 사람이요 학생은 모두 사귀어 동안 여러 계층의 남자와 여자들이 온다.

들어가기 좀 힘들지만, 허겁지겁 외쳐 보자고 말고 좀 미미 연락하면 순서와 영어 수준에 따라 공평하게 입학시켜 주는 곳.

익숙 때문에 학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의 연구사업으로 한국인에게 영어를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곳.

서울시내의 국민학교 영어 담당교사에게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곳.

제132기 수강생모집

- 개 강: 1993. 11. 1.
- 강 사 진: NATIVE SPEAKER
- 강의시간: 11월75분 주5일
- 반 편 성: 8~13명씩 7단계

● 미국 영국 개별어학수업 상담

제민인간교육연구소 부설 언어교육원 language teaching research center

코리아나호텔빌 737-4641 (대)

"언어정복"

수많은 선배님들의 외국어 배움터였던 「과거」의 시사영어학원은 세모습, 세시대로 새롭게 태어난 「오늘」의 시사영어학원을 위하여 21세기의 도전에 동참하는 당선의 「미래」의 시사영어학원을 되찾습니다.

TOEIC TOEFL L.C. APPT News & Drama 듣기반 ORAL HEARING TIME 작문반

영어회화 (한·일·영) WRITING SEMINAR 영어듣기·말하기·독해·듣기·말하기 능력시험대비반 독·해·회화 리사이클링반·독·해·회화

TOEFL GRE VOCAB 22000 GRE VOCAB M.A. ENGLISH TOEFL 600 GRE GMAT M.A. ENGLISH TOEFL 600 GRE GMAT M.A. ENGLISH TOEFL 600 GRE GMAT M.A. ENGLISH TOEFL 600 GRE GMAT M.A. ENGLISH

학복위 특감결과 공식발표이전 유인물 배포 총학, 선거악용 가능성 우려 오는 30일 발표되는 공식발표에 귀추 주목

학복위 공개특별감사와 관련된 공인회계사의 공식발표이전에 1차보고라는 유인물이 학내에 배포돼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감사선정주제로 감사에 참여

했던 김도학(경영2)군 명의로 배포된 이 유인물은 공식적인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몇가지 사항에 대해 비리규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유인물에 따르면 보리수 매장공사와 단기대여금, 매출원가 부분에서 학복위의 비리가 있었다고 공인회계사의 발언을 이용해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공인회계사측은 유인물에서 말하고 있는 7백~8백선의 자금유용권은 지난 22일 김군이 찾아왔을 때도 얘기한 적이 없는 내용이라고 밝혔다.

또한 '여타 다른 내용'에 대해서도 비리이전 회계처리상의 오류이전 공식발표에서 밝혀질 일'라고 말해 유인물 내용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총학생회측은 이번 유인물배포에 대해 '공식발표도 없는 상황에서 대략적인 인턴 내부내용 일부만 발해해 비리라 규정했다며 학복위 문제의 선거 악용을 우려한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측도 선거거시기의 중요성을 감안 위원회의를 통해 따돌리게 공인회계사를 밝히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유인물 명목의 김군은 유인물 배포 당일 표현방식의 왜곡과 작성에 자신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혀 의혹을 사고 있다.

현재 공인회계사의 감사 보고서 초안작성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최종적인 보고서는 오는 30일께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 작성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 공인회계법인측은 개선방안에 대한 논란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다고 밝혔다.

경주 단과대 선거후보자 등록마감 동원·졸준위 내달 초 투표 실시

의과대, 불교문화대학을 제외한 경주캠퍼스 각 단과대 학생회 정·부회장선거가 지난 22일로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본격적인 유세활동에 들어갔다.

예년과 달리 자연대를 제외한 단과대 학생들이 단일 후보로 등록함으로써 선거결과가 그다지 뜨거워지지 않을 전망이다.

한편 동아리 연합회 정·부회장선거는 기호1번 이문희(철3HAM), 이화정(국문3 동국문화회)조와 기호2번 심수민(중문3 동국언어회), 손성호(무악3 AFKN연구회)조가 입후보 해 11월3일 오후 5시 도서관3층 시청각실에서 투표를 실시한다.

졸업준비 위원회선거는 기호1번 조일환(무악3)-김은주(사회복지3)조, 기호2번 김철수(야간경영3)-임춘규(영문3)조, 기호3번 김운수(영3)-손무열(수호3)조가 입후보 해 내달 5일 투표를 실시한다.

또한 불교문화대학 의과대는 오는 28일 후보등록을 마감하고 한의과대는 이재철(한외2)-정승기(한외2)조가 당선됐다.

경주 94학년도 단과대 학생회 정·부회장 입후보자 명단

	기호 1	기호 2
인문대	정:오정기(철4) 부:송인호(영문3)	
자연대	정:최창용(화3) 부:정상엽(전신3)	정:박기원(생물3) 부:서원복(조경3)
법정대	정:차중철(법3) 부:박희정(행정3)	
상경대	정:김준현(경영3) 부:김성기(경제3)	

중이킵의 여성
○...마흔 하늘에 날벼락이라고 며칠전 길을 걷던 한 학우는 난데없이 떨어진 중이킵에 간신히 피하긴 했으나 그안에 가득한 담배꽂초와 재를 보고 간지 쾅 앞만 해졌는데...

재활용의 모범이라도 보이려는데 다른 중이킵들을 재떨이로 활용하는 것까지야 누가 뭐라 하겠나만은 대부분 강의실에서 밖에 채워 굴러다니거나 창문에 붙여 바람에 날려가기를 기다리는 운명이라고.

이에 본 회전무대자 "중이킵의 여성은 쓰레기통에서!"
학생 출입금지
○...학복위 공개특별감사를 진행하고 감사보고서

작성 마무리단계에 접어들고 있는 안전회계법인 사무실에는 '입조심' 경고가 내려졌다는 소문.
회계법인은 공식발표가 나가기 이전부터 사무실을 방문, 대략적인 인턴 비리를 한두 회계사의 말로

을 부각하는게 어떨까요?"
이쉬운 사티
○...동악이 온통 선거분위기로 뜨거워져 갑작스런 사티소식으로 많은 학우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강정민·김주영양이 총학학

출판부를 진단한다 인식전환과 재정지원 필요

출판부(부장=김용철)는 지난 1학기동안 '한국과학사상사 연구(이용범)', '노예의 길(F.A. 하이에크)', '김영정 옮김', '일반생물학(김주원)' 등 3권의 책을 출판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는 지난 89년 한국불교전서 10책 완간으로 학교뿐만 아니라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출판부(부장=김용철)는 지난 1학기동안 '한국과학사상사 연구(이용범)', '노예의 길(F.A. 하이에크)', '김영정 옮김', '일반생물학(김주원)' 등 3권의 책을 출판하는 실적을 올렸다.

이러한 실적에서 사실상 재정적 뒷받침이 되는 교양교과 개발사업은 오래전에 제작했던 국어, 영어 등의 필수과목이고 대부분은 판매수익이 극히 저조한 학술서의 출판이 대부분이어서 출판부는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름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학내구성원들의 출판부에 대한 인식부족이다.
지난 1학기동안 출판된 도서만 보더라도 대부분이 몇종의 학술도서이고 정작 교양과

목이나 전공교과는 외부출판사에 맡겨져 교수 개인의 영달을 목적으로 이용하는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다.
물론 대학 출판부가 일반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출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양교과나 전공교과 등의 판매수익이 높은 도서출판만을 고집해서는 안되지만 학내구성원 스스로 출판부에 관심을 갖고 출판부의 중요성을 인식한다면 충분히 출판부는 활성화 될 수 있다.

또한 학교측에서 연구와 직결되는 출판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고 좀더 관심을 가져야겠다는 재정지원으로 출판부를 활성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양수정 기자)

특정기금 지원 해외연수교원

임돈희교수 등 3명
교무처(처장=정병조·국문언어)는 94학년도 2학기 교직원 해외연수 특별기금지원 교원해외연수자로 임돈희(사학), 한진수(회계학), 강태호(조경학)교수 등 3명을 확정했다.

임돈희 교수는 한국사회의변천과정을 미국 인디애나에서 연구하게 되며 한진수 교수는 '한국과 미국의 회계교육과 회계실무'에 있어 컴퓨터 이용에 관한 비교연구'를 과제로 미국

인디애나에서 연구하게 된다.
또한 강태호 교수는 '역사도시의 공간구조와 경관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중국, 일본, 한국의 고도시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중국 청화에서 연구하게 된다.

한편 이번엔 선정된 교원해외연수대상자의 연수기간은 오는 94년 9월1일부터 95년 2월 28일까지이다.

박물관 공사로 휴관

박물관(관장=홍윤식·역사교육)은 내부수리공사로 인해 지난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휴관에 들어갔다.
이번 공사는 내부벽면 페인트칠과 손잡이 전열장등을 보수·수리하게 된다.

정의·행정학과 교수충원 요구 학교당국·학생회 견해차로 마찰 예상돼

94학년도 1학기 교수충원이 예년보다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의·행정학과 교수충원 요구가 학교당국과 학생회 견해차로 마찰 예상돼

가 무시될 경우 교무처나 기획조정실 절차능력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임을 밝혔다.
현재 행정학과 교수 6명의 교수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강의와 맡고 있는 교수는 4명뿐이며 1명은 국외의원을 맡고 있어 휴직상태이며 다른 한명은 보직을 맡고 있어 실질적으로 강의의 진행이 어려운 상태이다.

이로 인해 행정학과 2학년 전공수업은 모두 강사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상황은 정치외교학과도 마찬가지여서 지난 1학기말 총학생회 교수의 정년퇴임으로 상황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특히 정치외교학과 교수보직을 맡고 있는 교수가 타과에 비해 유난히 많아 정성적인 수업진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한편 94학년도 1학기 교수충

원안으로 환불소송을 빚은 학생회비는 경주캠퍼스도 94학년도 1학기부터 8천원으로 인상납부하게 됐다.

교무처 연구년 교수 확정
교무처(처장=정병조·국문언어)는 94학년도 연구년교수로 김경배(국어국문학)교수와 오국근(영어영문학)교수를 확정했다.

김경배 교수는 평안방언 조사와 자료집집행을 과제로 오는 94년 3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6개월간 연구하게되며 오국근 교수는 '가야문화고(고대한인 교역사)'를 과제로 오는 94년 3월1일부터 95년 2월28일까지 연구하게된다.

특별 상정안전인 학생회비 인상률은 83명의 대의원중 5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올해 서울캠퍼스만의

경주 대의원 총회 열어
의장선출·학생회비 인상
경주캠퍼스 총대의원회(의장=이종철·야간법4)총회 및 제11대 정·부회장 선거가 지난 19일 오후 5시 도서관 시청각실에서 대의원 83명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이날 선거는 대의원 1백17명 중 83명이 참석해 찬성76표 반대43표로 단독 입후보한 윤진주(무악3)·정영선(행정3)후보가 당선됐다.

한편 주요안전인 회계개정 제41조 학회, 제86조2항 단과대생회 정·부회장 여학생회 정·부회장 학회의 일부를 개정했다.

특별 상정안전인 학생회비 인상률은 83명의 대의원중 59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올해 서울캠퍼스만의

천리안이 신세대에게 드리는 가장 저렴한 서비스—천리안 POP

“지금 천리안POP의 세계로 오십시오”



신세대는 팔방미인, 하바드 박사도 부럽잖다

문화예술에서 시사경보까지 - 정보매인 소릴 듣는다

돌아다니지 않고도 취미나 아르바이트 정보가 많다

10월 1일부터 01420 으로, 전국 어디서나 시내전화요금으로 천리안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시간과 돈을 절약하면서 다양한 이성친구를 사귈 수 있다

야구, 축구, 불명에서 바둑까지 - 스포츠 레저상상의 스타가 된다

신세대는 미래파, PC철학관으로 신주·윤명·공합도 본다

PC통신의 세계가 이렇게 신나는 줄 몰랐어요

“무로서비스인 GUEST”를 이용해보세요

천리안서비스중 공개서비스(생활 및 공공정보)를 GUEST ID를 통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리안 팝이란? : PC통신을 즐기는 신세대들을 위해 국내 최고의 종합정보서비스 천리안에서 주요 통신기능과 일상생활정보를 일선하여 제공하는 가장 저렴한 서비스입니다.

■천리안 서비스란? : 데이콤의 종합정보서비스로서 키보드만 누르면 각종의 다양한 정보이용과 대화, 토론, 동호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가입 즉시 이용할 수 있는 국내 최고, 최대의 서비스입니다.

*PC통신 : 250여종의 통신서비스 *정보이용 : 900여종의 데이터베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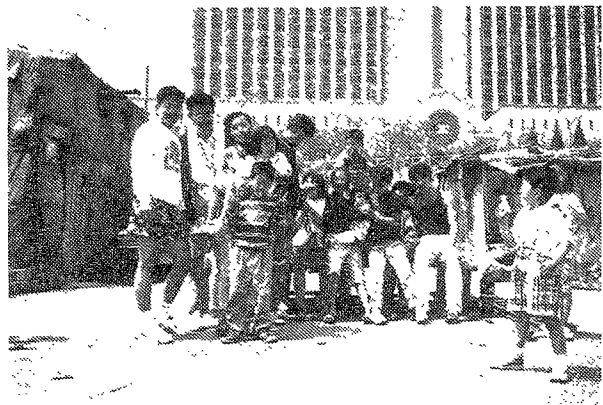
■신청방법 : 모뎀이 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며, 데이콤 지사와 지정점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요금저당납부제도를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데이콤 종합안내센터 (02)220-0220 080-023-0220 (데이콤 요금부담전화)

◇철거촌 공부방 선생님이 본 꽃마을 아이들

“무허가 판자촌 딱지 떼어요”



◇ 철거촌인 서초동 꽃마을 사람들은 영구임대 APT로 이주했다. 이제야 철거와 화재의 불안에서 벗어났지만 자녀교육문제로 부모들은 아직도 걱정이다.

“우리에게 집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울거나 살아 생전에 작은집이라도 있었으면...” 철거로 인해 집을 잃기 전 철거지역 아동들이 자주 불렀던 노래의 한 토막이다.

도시빈민 중에서 철거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나, 철거촌에서 쫓겨난 사람들을 처럼 “집” 때문에 서러운 눈물을 흘린 사람들은 드물 것이다.

각각 다른 사람들이 한곳에 모여 집단적인 흔적 형태를 이루며, 공동체적인 생활을 하는 철거민들은 도시사회에서 보기 드문 이웃과의 정이랄까 협동심을 갖게 되는 데, 갑작스런 강제철거에 의해 파괴된다.

세계 각 지역이나 무허가 판자촌(비닐하우스촌)에 거주하므로 강제 철거는 있을 수 밖에 없으며, 철거 형태 또한 폭력적이다.

이로 인해 가장 가까에서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부류는 철거 지역의 아동들이다.

무허가 판자촌의 경우 작은 땅에 많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있어 자연스럽게 마을 전체 주민들이 서로 알고 지낸다.

철거 지역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기 때문에 마을주민 총화 때나, 마을 구경가게 앞에 모이면 팔도 지방 사투리가 화음을 이룬다.

일정한 일거리가 없는 사람들은 안정적 직업이 없어서인지 틈틈이 기질이 많다.

이들은 거의 매일 모여서 술을 먹거나 화투 치면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거친 언어나 욕설을 내뱉는다.

특히 철거 일자가 가까워 지면 주민들은 긴장하고 신경이 예민해

진다. 이럴때 일수록 주민들은 죄 없는 아이들에게 화를 내기 일쑤다. 아이들은 불만스런 눈으로 어른들의 언어나 행동을 대한다. 그러나 어른들의 거친 행동이나 욕설 등에 대해 시간이 흐를수록 무뎌진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끼리 놀면서 어른들이 말한 욕설이나 거친 행동을 흉내 내거나 그대로 사용하기도 한다.

마을에 나오지 않고 집에서 공부한다 해도 옆집과의 벽이 베리어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잠자는 숨소리까지 들린다.

마을에서 큰 소리를 치거나 싸움을 하면 동네 전체가 떠들썩한다. 천연두에 걸린 마을일 경우엔 아이들은 거의 매일 싸움을 구경할 수 있다.

작년, 철거된 서초동 꽃마을의 경우 천연두에 걸린 마을에 구경가게는 두 군데 밖에 없었다.

마을 한가운데 모여 밤늦게까지 술을 마시다보면 자연히 높은 언성이나 오고 가게 마련이다. 이런 일들은 철거촌에서 영구임대 APT로 이주 하기도 비일비재했다.

이때 어른들의 언어 폭력을 아이들은 가장 싫어 한다. 술주정하거나 어른들끼리 싸움때보다 ‘욕설’을 할 때 아이들은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인 것 같다.

어려울수록 자녀에 기대가 커져 나가는 부모들은 대부분 마을을 떠나고 싶어 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의 교육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당장 이사 갈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안주하면서 아이들을 학교에서 돌아오면 일반 주택가 사람들의 교육열

과 비슷할 정도로 일반 학원에 보내는 부모들이 많다. 그만큼 자신의 가난함을 아이들을 통해 극복하거나 대물림하고 싶지 않아서 기대감 또한 크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의 장래희망도 일방적으로 높은 지위를 많이 바라는 직업에 대해 아이들 스스로도 권력이나 사업가를 많이 말한다.

판자집에 살면서 근처 일반 주택의 부엌집들과 쉽게 비교될 수 있으며, 부모들은 아이들의 마음을 달랠기 위해 돈벌어서 새 집으로 이사 간다고 얘기하거나 열심히 공부 해야만 훌륭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무조건적인 높은 교육열로 인해 아이들은 정서적, 심리적인 불안감을 많이 느껴 부모님이 가장 미워 보일 때가 자주 공부 하라고 강요할 때이다.

설문조사 결과 “공부 하라고 강요할 때” 아이들은 “가혹”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고 나타났다.

집안이 가난하거나 부모님의 무관심도 기술의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의 경우 자주 공부 하라고 강요할때도 가혹하고 싶은 원인이 되는 것이다.

자신 동사에 투자하는 돈은 아깝지 않다는 말이 있듯이 가난한 사람들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영구임대 APT로 이사한 아이들 무허가 판자촌에서 철거와 화재로 불안과 공포속에 살아 왔던 아이들...

어느날 학교에서 돌아와 화재로 불타버린 폐허 위에서 아무런 영문도 모른 채 눈물 흘렸던 아이들은 그래도 서초동 꽃마을이 기억에 남을 것이다.

꽃마을에서 흙을 만지며 놀았던 아이들이 지금은 콘크리트 APT로 이주 한지 1년이 되었다.

1년간 생활 하면서 느낀점은 서로 다르지만 공통적인 생각은 꽃마을에서나 영구 임대 APT에서 똑같은 현상은 어른들의 술주정이나 욕설이다.

또한 전체적인 생각일수는 없지만, 저학년일수록 서초동 꽃마을이 더 좋았다 한다.

꽃마을에서 지낸 친구들과 쉽게 어울려 놀기가 힘들고 집에 한 번 들어 가면 친구들과 놀자고 얘기하기가 힘들다고 한다.

국민학생인 이재호군은 “꽃마을에 살때는 새 집으로 이사가는 꿈을 많이 꾸었어요 그런데 여기 오니까 외딴섬에 온 것 같아요”라고 말한다.

혹식동 산동네에서 왔다는 한 어린이는 “혹식동에서는요, 산에 오르면 뛰놀 수 있었지만 여기는 담요 애들보고 놀자고 해도 집에 들어가면 안나와요”라고 말했다.

영구임대 APT로 이사 오니까 더 좋다고 말하는 소정현(중2)은 꽃마을에서 5년간 살았었다.

이곳에선 불에 대한 걱정이 없고, 비가 와도 천장에서 빗물이 새지 않아 겨울에는 춥지 않고 여름에는 덥지 않을 것이란다.

그래서 꽃마을보다 몇 배 좋아서 밭에 웃는 모습에서 무허가 판자촌이 얼마나 열악한 곳이었는가를 느낄 수 있었다.

이제 꽃마을에서처럼 화장실을 갈 때 출석지 않아도 된다.

친구들의 편지도 집에서 직접 받아 볼 수 있고, 편지 없는 무허가 판자촌의 딱지를 떼어서 신난다고 한다.

강제철거의 악몽에서 갖 벗어난 아이들을 볼때마다 또 한가지 걱정이 든다는 김정자(가명)씨는 강남지역 APT촌에서 수석단지 영구임대 APT에 산다고, 8학년 아이들이 게기가 죽을까봐 걱정 된다며 하루 빨리 영세민 딱지를 떼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한다.

계중 의식이 뚜렷이 보이는 강남지역에 들어와 오뚜기처럼 사는 철거촌 사람들...

자녀의 교육문제와 기대감은 강남지역에서 가장 높은 의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조 천 현 (전 꽃마을 건립방 교사·농성 90 일)

영화의 패러독스

마리오 반 피블스 감독 ‘파시’

시위 같은 ‘흑인적’ 영화 서부극 풍자로 백인신화 조롱



영화는 현실을 반영하고 충실히 복제해낸다. 과연 영화는 현실의 이면에 놓인 진실 또는 본질을 얼마만큼 드러낼 수 있을까. 영화가 단지 외적인 점을 떠나서 내면의 깊이까지를 파고드는 중요한 매체라면 그것은 어디까지인가.

마리오 반 피블스 감독의 미국영화 ‘파시’를 보면 종래의 영화와는 다른 느낌을 받게 된다. 요즘엔 잘 만들어지지 않지만 가끔씩 나타나지는 지나간 장르 서부극이고 흑인들이 활약하는 특이한 영화인 것이다. 흑인이 주인공이 되어 선한 인물이 되고 백인이 악당이 되는 그런 서부극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영화는 아주 의도적으로 만든 흑인 영화다.

왜 이런 극단적인 흑인영화가 나타나고 있을까. 최근의 ‘탈복X’를 만든 스프라크 리, ‘부메랑’을 만든 에디 머피, 그리고 마리오 반 피블스는 백인관객이라면, 아마 한평생 보지 않을 그런 ‘흑인적’ 영화를 한결같이 만든다. 그런 마치 무슨 알감의 행동강령도 하고 일종의 시위며, 운동장기도 하다.

왜 그런 영화가 나오고 있을까. 우리가 미국영화에 대해서 좀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것이 얼마나 인종적, 계급적, 성적으로 모순화되어 있는가를 쉽게 알아차릴 수 있다.

영화뿐만 아니라 미국문화 전반이 어떤 하나의 중심문화로 형성하며 지배적으로 움직인다. 그런 백인중심이며, 중상류층의 착취적 권력중심이고, 또한 남성가부장중심의 문화이다.

현실의 표면은 항상 평등하며 평화를 지향한다. 그 이면의 진실은 불평등하고 분노에 가득차 있다. 그러한 갈등의 모순은 헐리웃 영화 속에서 항상 소재로 취급되어 오지만, 언제나 결론은 지배문화의 논리로 이끌려 나간다.

가장 대중적인 오락으로 기능하는 영화속에서 그렇게 현실이 은폐되고 왜곡될 때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들은 영화를 보고 깊이 공감하기는 커녕 오히려 분노에 떨게 된다. 바로 그 피해자들이 흑인이었고 노동자들이며 여성이었다.

이 영화 ‘파시’의 서두는 한 늙은 흑인이 과거를 회상하며 이렇다(미국)위대한 흑인영웅들이 있었다고 역사서술을 한다. 그는 영화의

서술자이면서 동시에 역사의 증인이며, 그것은 진실이라는 느낌을 주기 위한 방식이다. 이러한 방식은 백인이 스스로의 역사를 반영하듯이 만든 수정주의 역사관의 서부극 ‘작은 거인’에서 이미 쓰였던 수법이다. ‘파시’는 오히려 그 영화를 의식한 듯하며, 백인 서부극을 풍자(패러디)하고 있다. 패러디 기법은 현대영화의 한 보편적인 방식으로서, 흑인영화 ‘탈복X’가 백인들에 의해 우상화된 마틴 루터킹과 케네디 신화를 조롱하기 위해 JFK를 패러디화한 것과 같은 경우이다.

종래의 오락상품으로서의 서부극 장르가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시 탄생할때, 이미 그 영화는 단순한 오락의 차원을 초월한다. ‘파시’는 백인들에 의해 왜곡되어온 헐리웃 영화의 역사, 미국 건설의 역사를 흑인 시각, 소수 민족의 시각으로 다시 읽어내려 한다. 영화 한편이 우리의 고정관념을 뒤엎는 경우는 분명 영화보기의 한 즐거움이다. ‘파시’를 통해 우리는 지식의 즐거움 또한 건강한 문화생산을 어떻게 돕는지를 스스로 깨닫는다.

정재형 (예술대 연영과 교수·영화평론가)

문 학 단 신
공 연 내
◇우리가 서로를 알지 못했

▲우 리 는 일 마 진
‘우리의 영화를 만날 수 있었다. 우리의 것에 익숙하지 못했던 많은 이들의 가슴을 파의 유전을 느낄만치 진통케 한 영화가 있었다. 서편제는 한평생을 진달렸고 공명관전력 영화인과 관람객을 전율케 했다. 남도의 한, 서편제는 외면받은 영화인들의 한 줄이이기도 했다. 서편제는 서정적화면과 우리의 판소리, 그리고 우리의 영화와 있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하기에 충분했다. 또 다시 제2의 서편제를 기다리는 설레임도 갖게됐다. △지난 14일 문화체육부는 한국영화의 제작현황과 극장수급현황을 감안해 국산영화의 무상영입수(스크린쿼터)를 1백46일에서 1백28일로 감축한다고 발표했다. 한국 영화계에는 청천벽력일었고 직배사나 수입업자들은 반가운 일이었을 것이다.

수입영화의 이익을 한국영화제작비로 돌린다는 그럴듯한 논리가 받아들여졌던 것일까? 문화체육부는 이번 결정의 이유로 한국영화제작의 전반적인 부진과 실정론으로 인한 자금압박으로 영화편수가 줄어든 것을 들고 있다. 그러나 조금만 눈여겨 살펴보면 문화체육부나 수입업자들의 주장이 근거없는 논리임을 보게된다.

이유로 영화시장을 헐리웃에 내준이래 한년도 영화진흥을 위한 정책을 정부는 내은 일이 없다. 오히려 수입업자들에겐 선풍한 국영화에 난도질하는 역활만을 해왔을 뿐이다. ▲오늘(27일)은 영화인의 날이다. 이날 문화체육부의 발표이후 영화인협회에 해체한 한국영화인들은 범영화인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항의농성과 선전전을 진행했다. 모두 카메라를 들고 자축해야 할 날에 거리를 나서고 있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던 우리의 문화, 외세문화와 외래문화로부터 새롭게 움트길 바랐던 우리의 영상은 정부가 외면함으로써 어두워지고 있다. 이번 문제가 영화인들의 문제일 뿐 아니라 다시는 서편제와 같은 우리의 영화를 볼 수 없을지 모르는 우리의 문제라는 생각이 마음이 답답하다.

(가)

한국영화의 위기

헐리웃 영화 1편의 성공으로 또다른 외화수입에 골몰했던 그들이 한국영화제작을 위해 힘썼던 일은 없었다. 이번 문화체육부의 발표는 국산영화진흥이라는 정부의도가 기만적이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준다. 지난 87년 군사정권이 미국측의 무역보복을

(나)



최 경 인 (32)



쾌적하고 생산적인 산업사의 창조

金星産電

“미래 자동화사회를 여는 가장 앞선 기술”

●전기·전자분야

●서비스설비분야

●환경·에너지분야

●산업자동화분야

금성산전은 종합 산업 전기·전자기술을 바탕으로 미래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산업용 전기·전자 분야의 세계 초임류 기업을 지향하는 금성산전은 산업 전반에 걸친 종합 기술력을 바탕으로 21세기 첨단 자동화사회를 앞서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金星産電部門

- 金星産電 ●金星計電 ●金星機電 ●金星電機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0 (여의공원 건너편)

대표전화 (02) 787-1114

산업자동화분야

- 로봇 ●PLC ●CNC ●인버터 ●물류자동화시스템
- 공장 및 빌딩 자동화시스템 ●교통관제시스템
- 전력계측시스템 등 다양한 시스템 엔지니어링

서비스설비분야

-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장 ●지게차
- 차량관리기기 ●자판기 ●전동공구 등

전기·전자분야

- 초고압설비 ●배전반설비 ●고저압기기 ●변전설비
- 제어계측기기 ●광반도체 등

환경·에너지분야

- 상하수처리시스템 ●전기발전기
- 자외선살균시스템 등 각종 공해방지설비
- 태양광발전시스템 ●열병합발전시스템 ●태양열온수기
- 축열기기 등 대체 에너지기기